



시가 있는 풍경

봄 편지

이해인

하얀 민들레 꽃씨 속에
바람으로 숨어서 오렴

이름없는 풀섬에서
잔기침하는 들꽃으로 오렴

눈 덮인 강 밑을
흐르는 물로 오렴

부리 고운 여두빛 산새의
노래와 함께 오렴

해마다 내가슴에
보이지 않게 살아오는 봄

진달래 꽃망을 처럼
아프게 부어오른 그리움

말없이 터뜨리며
나에게 오렴



시가 있는 풍경

봄 편지

이해인

하얀 민들레 꽃씨 속에
바람으로 숨어서 오렴

이름없는 풀섬에서
잔기침하는 들꽃으로 오렴

눈 덮인 강 밑을
흐르는 물로 오렴

부리 고운 여두빛 산새의
노래와 함께 오렴

해마다 내가슴에
보이지 않게 살아오는 봄

진달래 꽃망을 처럼
아프게 부어오른 그리움

말없이 터뜨리며
나에게 오렴

